셔틀버스 운행…무료 이·미용실 설치…다양한 문화행사

이래도 지하철 안타실래요?

광주 지하철 1호선 2구간(상무역~옥동차량기지, 8.14㎞) 개통을 앞두고 지난 23일 평동역 부근에서 승객들을 태운 채 시운전을 하고 있는 전동차. 2구간은 오는 3월 말 현재 운행중인 1구간(상무역~용산차량기지, 11.96㎞)과 완전히 연결된다. /나명주기자 mjna@kwangju.co.kr

1호선 2구간 개통 앞두고 대학·기업체 '승객 모시기' 총력

광주도시철도공사가 지하철 1호선 2구간 개통을 앞두고 대학 및 기업체와 함께 셔틀버스 운행 등 연계 교통망을 확충하고 다양한 편의시설을 설치하는 등 '승객 모시기'에 안간힘을 쓰고 있다.

오는 3월 지하철 1호선 완전 개통에 따라 새로 생기는 역은 현재 1호선 1구간 종점인 상무역에 이어 김대중컨벤션센터~공항~송정공원~송정리~도산~평동 등 6개역이다.

도시철도공사는 신설 노선의 장점과 교통 편의성을 내세워 지하철 종점인 평동역과 가까운 거리에 있는 동신대, 호남대, 광주여대를 공략, 학생 수요층을 개발하고 있다.

공사는 이들 대학이 신설되는 지하철역과 불과 10여분 거리 안팎에 있다는 장점을 내세워 평동역· 대학간 셔틀버스 운행노선 구축을 제안, 긍정적인 답변을 이끌어냈다.

동신대측은 2구간이 개통될 경우 학교~평동역간 셔틀버스를 운영하겠다는 의사를 밝혔고, 광주여대도 자체 보유한 35인승 버스를 송정공원역과 연계해 정기적으로 운영하겠다고 약속했다. 호남대도 평동역을 포함한 지하철 전 노선 수용연계 대책을 검토 중이다.

공사는 여기에다 하남, 평동 산단 입주업체 1천198곳을 방문, 통근버스 운행예산 절감을 위한 셔틀버스 운행을 적극 검토할 것을 권유하고 있다. 또 30인 이상 197개 업체들을 대상으로 공문을 보내 지하철 이용을 적극 권장하고 있다.

이밖에 공사는 송정리역 환승주차장 인근에 차량 100대를 주차할 수 있는 주차공간을 마련한데 이어 자전거 이용객들이 편리하게 지하철을 이용할 수 있도록 김대중 컨벤션센터, 송정공원, 도산역 등 6개 역에 자전거 보관대 404대를 새로 설치했다.

또 시민 곁으로 다가가는 지하철 행정을 구현하기 위해 무료 이·미용소를 송정공원역에 설치, 노인, 장애인 등을 대상으로 서비스를 제공한다. 현재 상무역 등에서 실시하고 있는 문화행사를 2구간에서도 개최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

광주시도 2구간 완전 개통에 따라 송정93번 버스 노선을 신설하는 등 지하철-버스 환승 체계를 확충키로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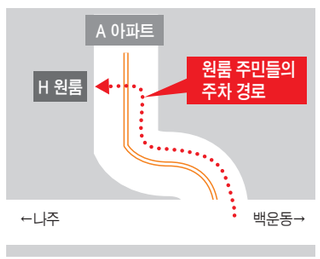
송정 93번 버스는 새로 생기는 지하철역인 평동, 송정리, 도산역을 경유, 평동산단 근로자와 광산지역 주민들에게 교통편의를 제공한다.

오행원 광주도시철도공사 사장은 "2호선이 완전개통됨에 따라 시민들이 더 편리하게 지하철을 이용하는 한편 광산구의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지하철이 시민들에게 사랑받는 대중교통 수단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윤영기기자 penfoot@kwangju.co.kr

이웃사촌 '중앙선 분쟁'

아파트 주민 "사고 위험 차량 진입 못한다"
원룸 입주자 "불법 유턴 없인 집 못 들어가"



마을 입구로 들어가는 진입로의 중앙선 침범을 놓고 인근에 사는 주민들이 마찰을 빚고 있다.

지난해 말 입주를 시작한 광주시 남구 진월동 H원룸 주민(12세대 중 5세대 입주)들은 건물 안에 주차를 하기 위해선 2차선 마을 진입로(직선길이 50m) 40m 지점에서 불법유턴을 해야 한다.

하지만 A아파트(437세대) 주민들은 정문 입구에서 10m도 떨어지지 않은 곳에서 원룸 차량이 유턴하게 되면 아파트 주민 차량과 충돌 위험이 있다며 주차를 막아 달라고 주장하고 있다. 최근엔 아파트 주민들이 중앙선 침범을 막기 위해 CCTV로 불법유턴 차량을 촬영한 후 경찰에 신고하는 등 분쟁은 더욱 커지고 있다.

광주남부경찰에 따르면 지난 14일 A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는 H원룸 입주자들이 주차를 위해 불법 유턴을 하는 바람에 사고 위험이 있다며 경찰에 단속을 요구했다. 이들은 또 '원룸에 진입하거나 원룸 안에 주차된 차는 불법 유턴한 차량이므로 즉시 고발하겠다'는 내용의 플래카드 두 장을 원룸 근처에 내걸었다.

특히 아파트 입구에 CCTV를 설치한 후 지난 21일엔 남부경찰 민원실에 불법 유턴 차량 2대를 촬영해 신고하는 등 강경 대응하고 있다. 조만간 아파트 정문에는 외부 차량을 막는 차단막도 설치할 예정이다.

A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관계자는 "원룸 건축 전부터 공사 차량이 불법 유턴을 해 진입하는 등 사고 위험이 끊이질 않았다"며 "원룸에 주민들이 입주한 이후에도 위험하니 주차장을 옮겨 달라고 부탁해도 듣질 않아 경찰에 신고까지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아파트 주민들의 이러한 제재에 원룸 입주자들은 억울하다는 심정이다. 원룸으로 들어오는 길이 하나밖에 없는데다 인근엔 딱히 주차할 만한 공간이 없다는 것이다.

원룸입주자 윤모(34)씨는 "도로 자체가 유턴을 할 수 없는 곳이긴 하나 그렇게 하지 않으면 집에 들어갈 수 없는데 우린 도대체 어디에 주차하란 말이냐"며 "좁은 도로여서 주차할 때도 천천히 들어오기 때문에 사고 위험은 거의 없다. 아파트 주민들이 너무 기득권을 주장하는 것 같아 안타깝다"고 토로했다.

남부경찰 관계자는 "유턴을 할 수 없는 곳이어서 원칙적으로는 불법이긴 하나 서로 조금씩 양보하면 될 일인데 너무 감정만 세우는 것 같다"며 "중재해서 해결될 일이 아니기 때문에 서로 만나서 합의점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강필상기자 kps@kwangju.co.kr

24일 오후 광주시 남구 진월동 H원룸 인근에 '원룸으로 진입하거나 진입된 차량은 중앙선을 침범한 불법 차량이므로 고발하겠다'는 내용의 플래카드 두 장이 걸려있다. /강필상기자 kps@kwangju.co.kr

광주시장실 옆 '비즈니스 룸'

기업체·시민단체에도 개방

귀빈 접견 장소 활용

광주시청 '비즈니스 룸'이 지역 공공기관과 기업체, 시민단체 등을 위한 귀빈 접견 장소로 개방된다.

광주시는 24일 "그동안 시가 주관하는 각종 행사의 귀빈 접견 장소로만 이용돼왔던 3층 시장실 옆 비즈니스 룸을 광주지역 공공기관이나 기업체, 시민단체 등에서도 활용할 수 있도록 개방키로 했다"고 밝혔다.

개방 범위는 공공기관 및 기업이 주최하는 국제교류·행사·투자유치 등에 따른 국내·외 귀빈 접견, 관내 기업체의 수출상담을 위한 외국 바이어 접견,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의 행사 등이다. 하지만 일반적인 친목단체 및 사적인 모임에는 이용할 수 없다.

'비즈니스 룸' 사용을 원할 경우 사용 목적에 맞춰 해당 실·과·소에 신청하면 된다.

문 인 광주시 자치행정국장은 "광주시가 아시아문화중심도시로써 면모를 갖춰나가고 있으나 국제화 시대에 걸맞는 손님맞이 장소가 없는 점을 감안해 개방을 확대하게 됐다"고 밝혔다.

/정후식기자 who@kwangju.co.kr

환경컨설팅지원반 구성

市, 산단 입주기업 지원

광주시가 산업단지 입주기업들을 위해 '환경컨설팅지원반'을 구성, 환경기술 및 행정업무 지원에 나선다.

시는 이 달부터 대기업 환경기술인과 공무원 6명으로 지원반을 꾸려 하남산단 등 시내 5개 산업단지에 입주한 기업에 대해 인·허가 안내, 환경기술 등을 지원키로 했다.

지원반은 매년 2차례 산단 입주업체들을 직접 방문해 기업들이 필요로 하는 행정 지원을 펴게 된다.

시는 이와 함께 환경 관련 인·허가 안내책자 500부를 자체 제작해 공장 등록때 창업기업에 배부키로 했다.

생활안내

교통안내

광주종합버스터미널	360-8114
철도안내	1544-7788
대한항공	222-2000
아시아나항공	221-6300
한국도로공사	1588-2505

상 담

●당직변호사(25일)	
한상종	232-0050
●법무사회 법률상담(25일)	
정자홍	370-0600
●가정법률상담소	
보건복지협회성폭력상담소	671-4050
광주 YWCA	527-0011
●24시간 청소년상담	
국번없이	1388
●국세종합상담센터	
국세청	1588-0060
●병무민원상담	
광주전남병무청	1588-9090
●소비자 상담	
광주 YMCA	232-6133
광주 YWCA	524-5400
주부교실	232-0643~4
녹색소비자문제연구	369-9881

신 고

●학교폭력	
국번없이	112
광주경찰청	222-0112
전남경찰청	366-0112
광주지검	233-2828
●사이버테러	(02)118
●가정폭력	
여성긴급 국번없이	1366
여기동수사대 (광주)	229-0118
(전남)	367-0118
광주 여성의 전화	363-7739
광주 남성의 전화	673-9001
●광주아동학대예방센터	1391
●광주노인학대예방센터	1389

119 장난전화 크게 줄었다

작년 광주 소방본부 1,286건 전년비 70% 감소

지난해 광주지역에서 119 장난전화가 큰 폭으로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광주시 소방안전본부에 따르면 지난해 광주지역에서 119 종합상황실에 걸려온 전화는 모두 37만3천83건으로 하루 평균 1천22건에 달했다.

이 가운데 전화 연결 시 무응답 등을 제외한 응급 전화내용은 화재·구조·구급신고가 5만7천965건(66.8%)으로 가장 많았고 민원안내 1만8천430건(21.2%), 홀로 사는 노인들의 무선 페이징이 9천106건(10.5%), 장난 전화 1천286건(1.5%) 순으로 분석됐다.

시간대별로는 오후 4시에서 오후 8시 사이, 요일별로는 주5일제 이후 야외활동 증가에 따라 주말과 휴일의 신고율이 높았다.

특히 장난전화는 2006년의 5천24건에 비해 74.4%나 줄어든 것으로 나타나 신고자에 대한 ARS 전화 및 역걸기를 통한 계도가 상당한 성과를 거둔 것으로 나타났다.

오인신고는 2천181건으로 쓰레기 소각이나 연막 소독 등으로 인한 것이 70% 이상을 차지했다. 시 소방본부 관계자는 "올해부터 화재예방조례가 시행되면서 화재로 오인할 만한 우려가 있는 불을 피우거나 연막소독때는 사전에 신고해야 한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정후식기자 who@kwangju.co.kr